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90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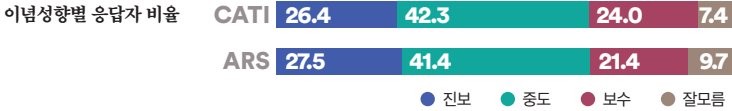
제105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5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5	100.0	1005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6	49.4	497	49.5	1.00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9	50.6	508	50.5	0.99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7	15.6	157	15.6	1.00
응답률	12.8% [총 통화시도 7,844명]			30대	150	14.9	149	14.8	0.99
조사기간	2024년 11월 8일 ~ 11월 9일(2일간)			40대	177	17.6	177	17.6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8	19.7	197	19.6	0.99
				60대	171	17.0	177	17.6	1.03
				70세 이상	152	15.1	148	14.7	0.97
			지역	서울	188	18.7	187	18.6	0.99
				인천·경기	324	32.2	323	32.1	0.99
				대전·세종·충청	109	10.8	108	10.7	0.99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7	14.6	149	14.8	1.01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성별

지역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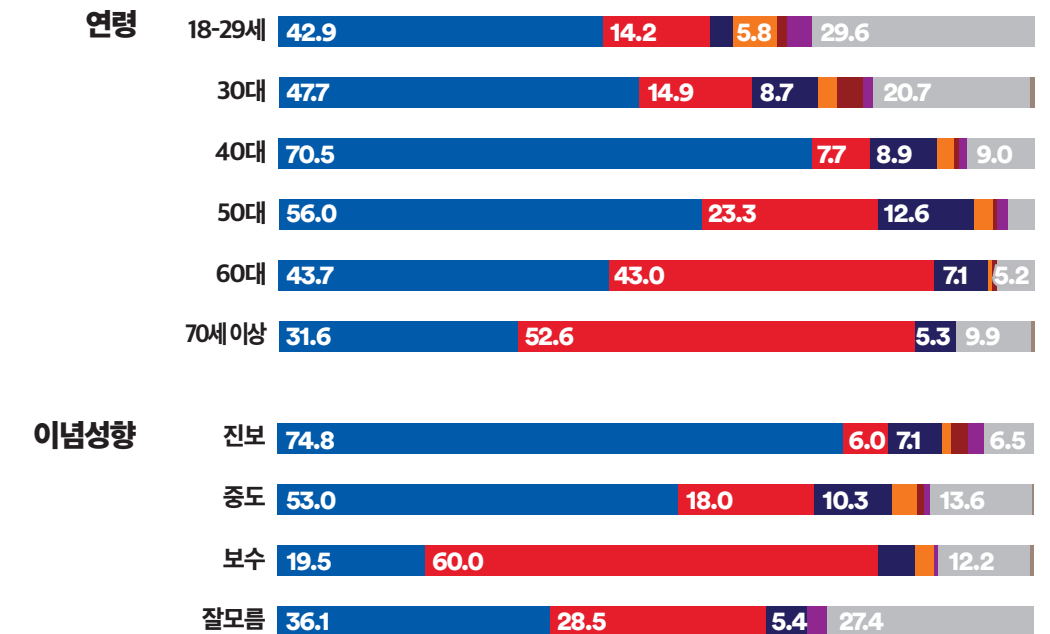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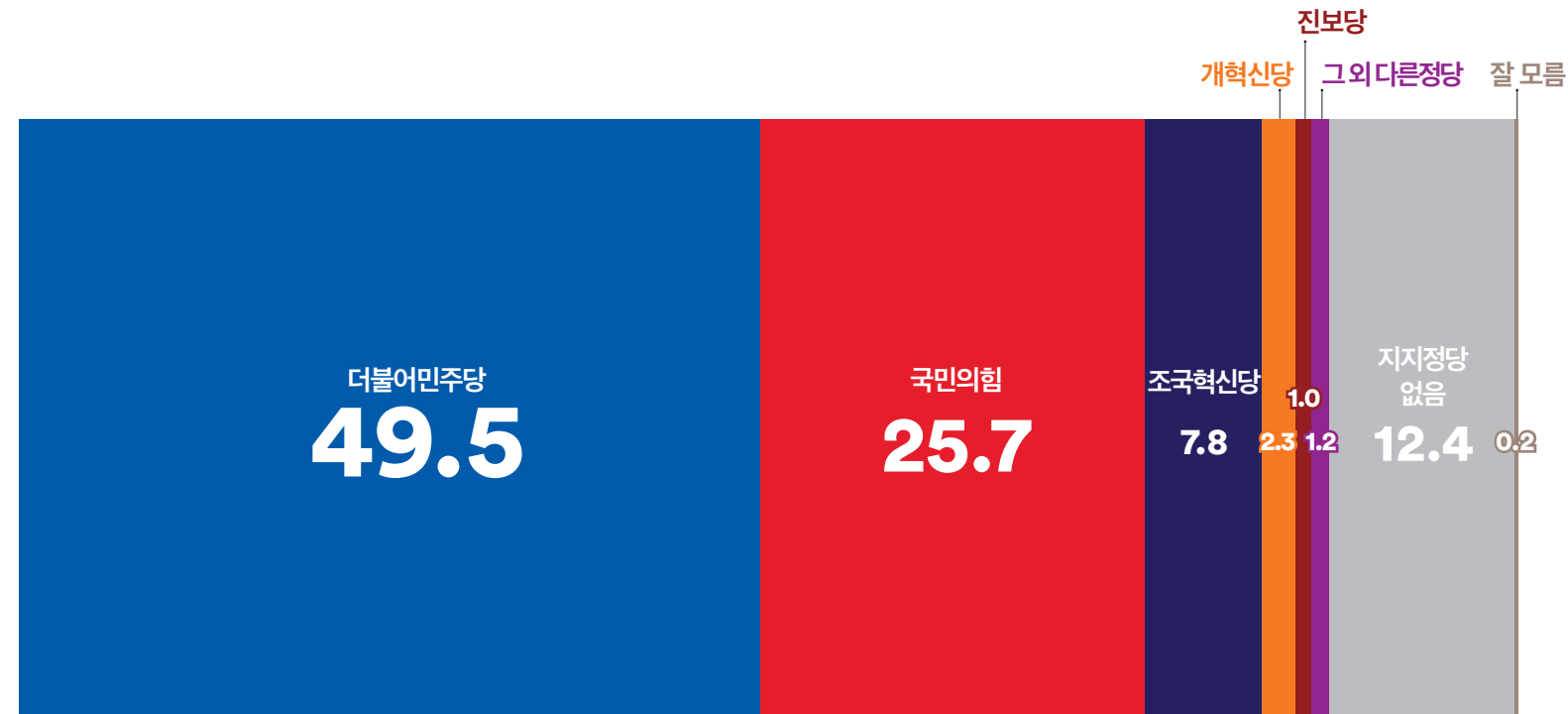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6	51.5	495	49.4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6	48.5	507	50.6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18	11.8	157	15.7	1.33
응답률	2.7% [총 통화시도 37,409명]			30대	133	13.3	149	14.9	1.12
조사기간	2024년 11월 8일 ~ 11월 9일(2일간)			40대	191	19.1	176	17.6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9	18.9	175	17.5	0.92
				70세 이상	157	15.7	148	14.8	0.94
			지역	서울	191	19.1	186	18.6	0.97
				인천·경기	325	32.4	322	32.1	0.99
				대전·세종·충청	95	9.5	108	10.8	1.13
				광주·전라	101	10.1	98	9.8	0.97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46	14.6	149	14.9	1.02
				강원·제주	45	4.5	42	4.2	0.9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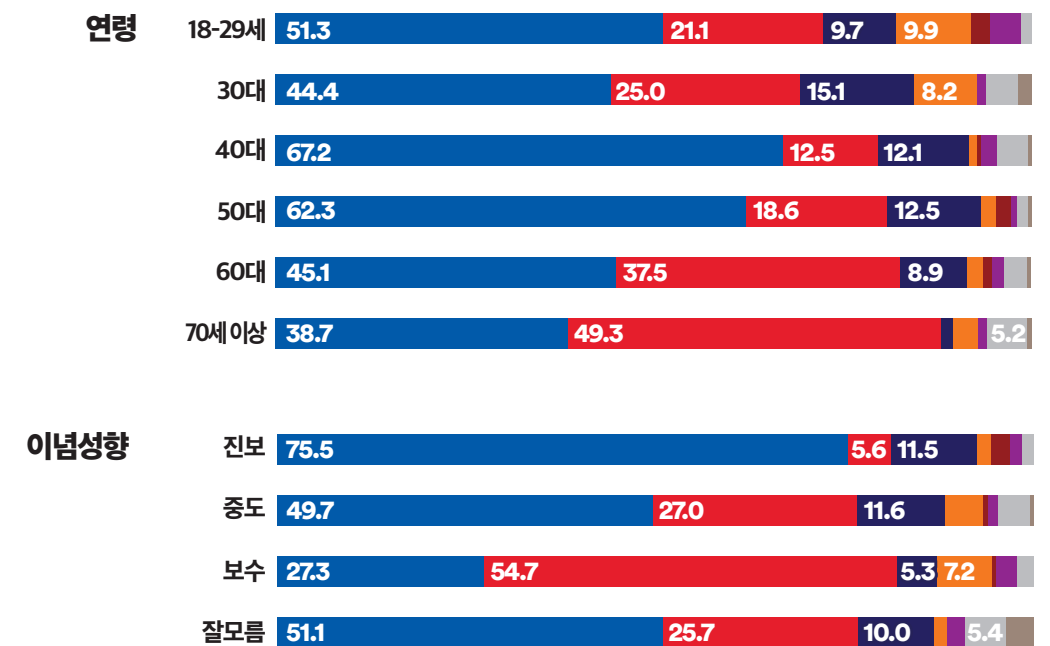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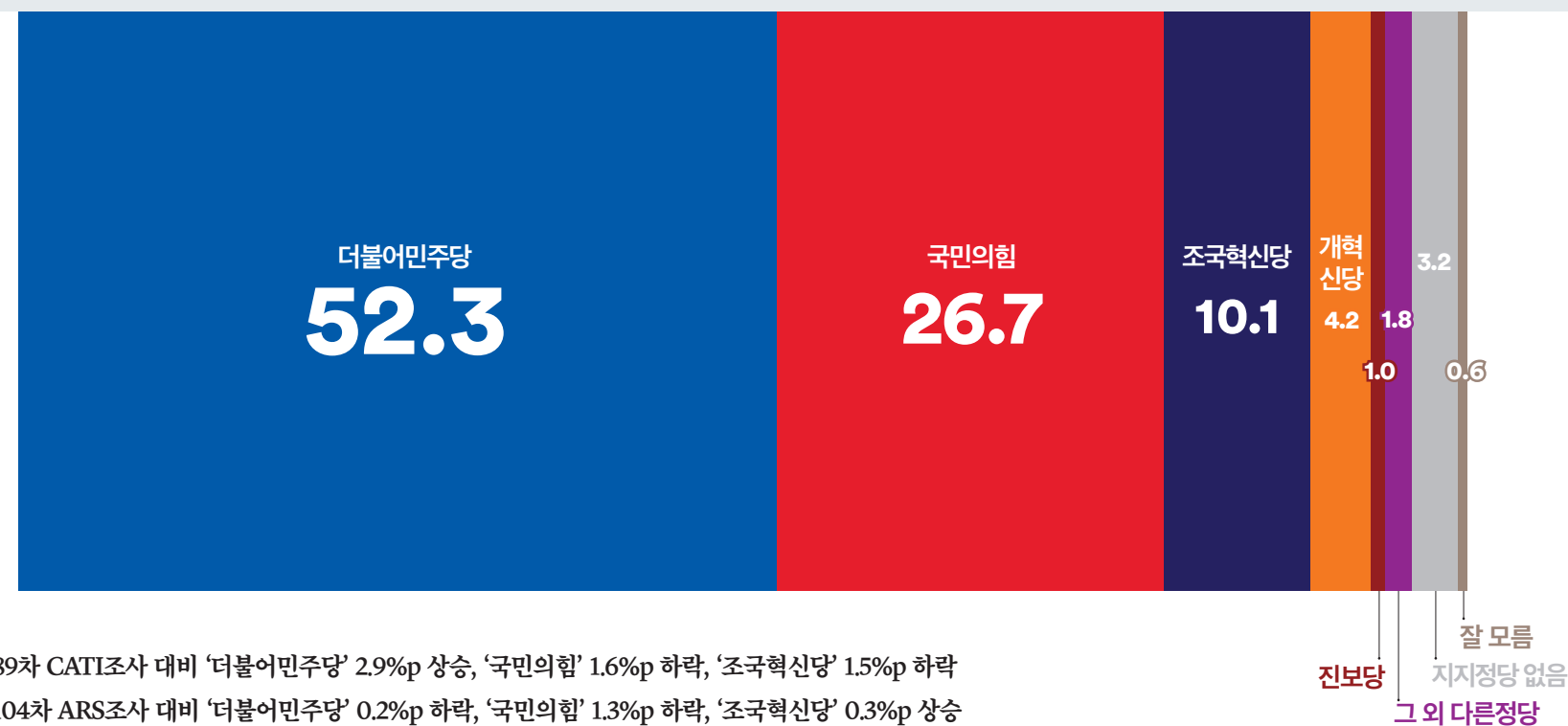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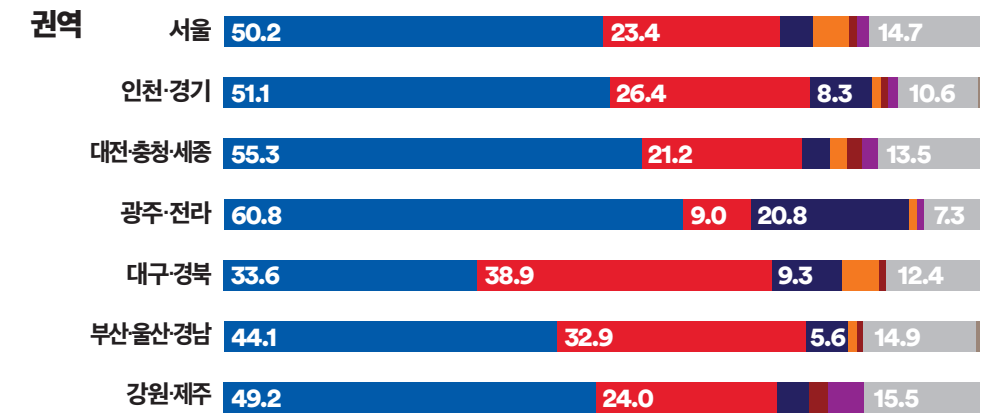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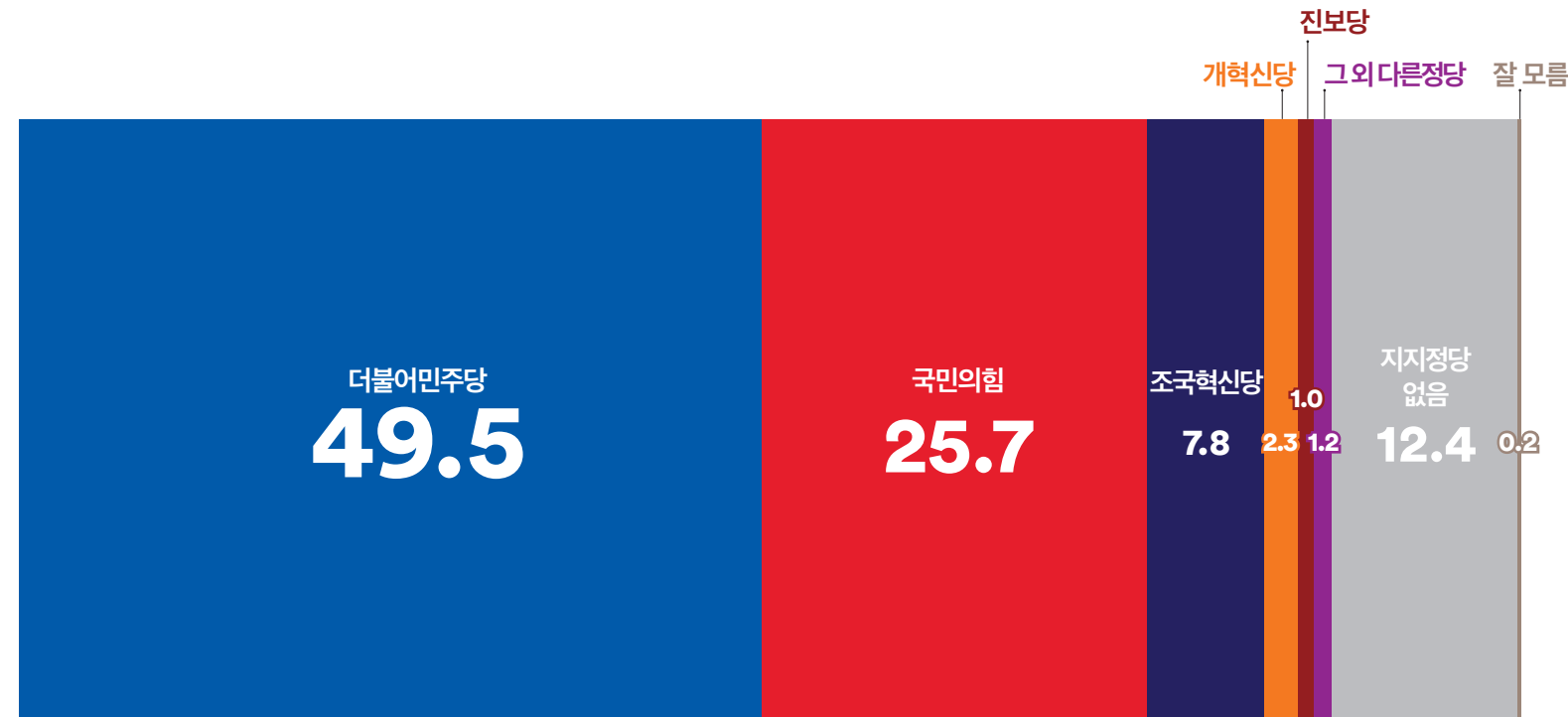


89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9%p 상승, '국민의힘' 1.6%p 하락, '조국혁신당' 1.5%p 하락
 104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2%p 하락, '국민의힘' 1.3%p 하락, '조국혁신당' 0.3%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3.8%p, ARS 25.6%p(지난 조사: CATI 19.3%p, ARS 24.5%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31.6%p, ARS 35.7%p(지난 조사: CATI 28.6%p, ARS 3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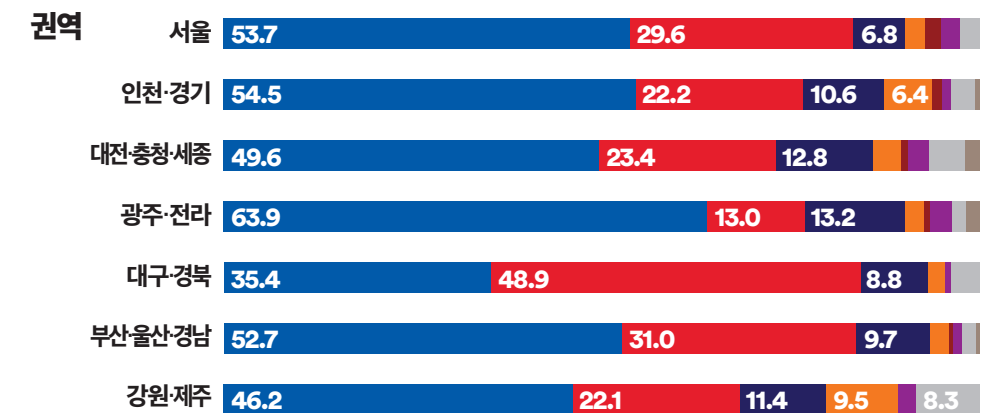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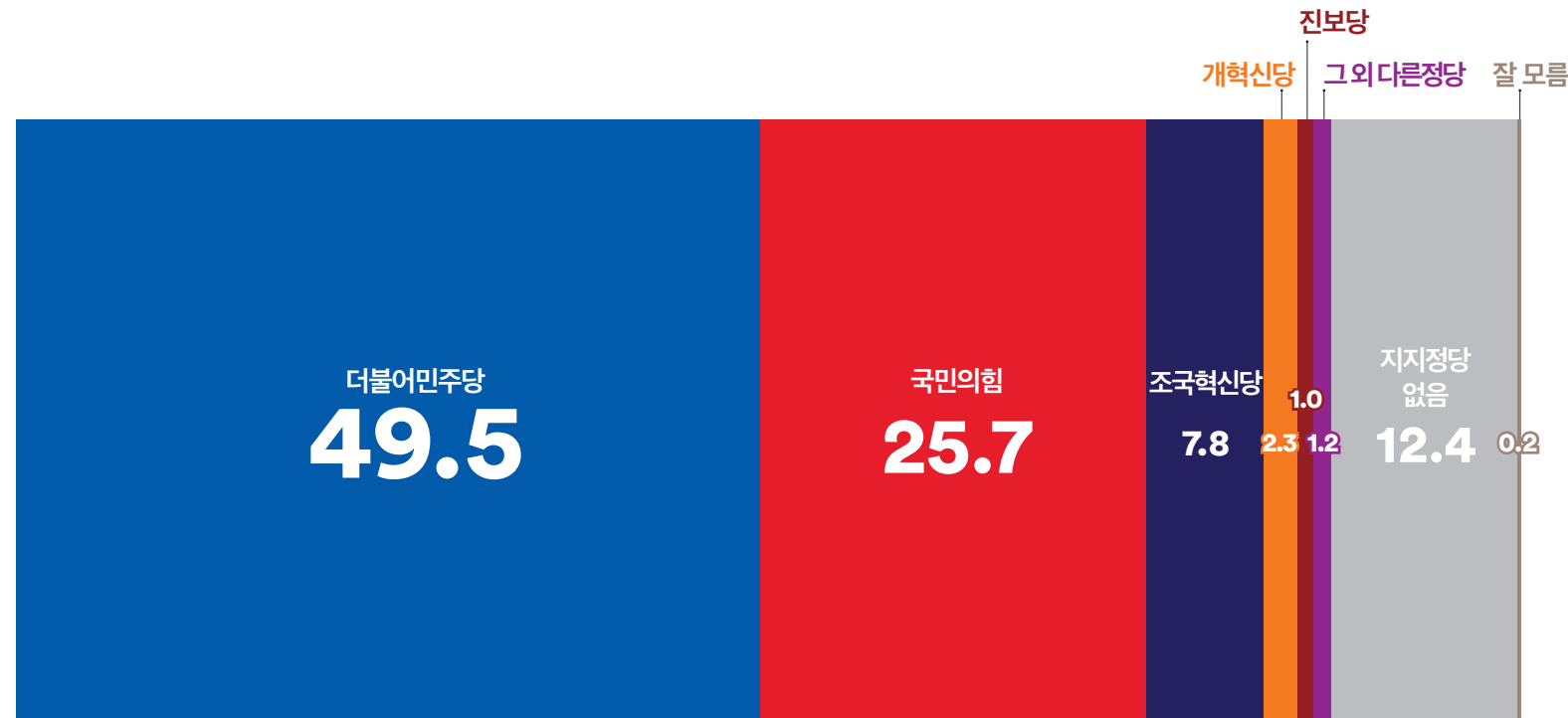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ARS PK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PK (ARS 강원·제주 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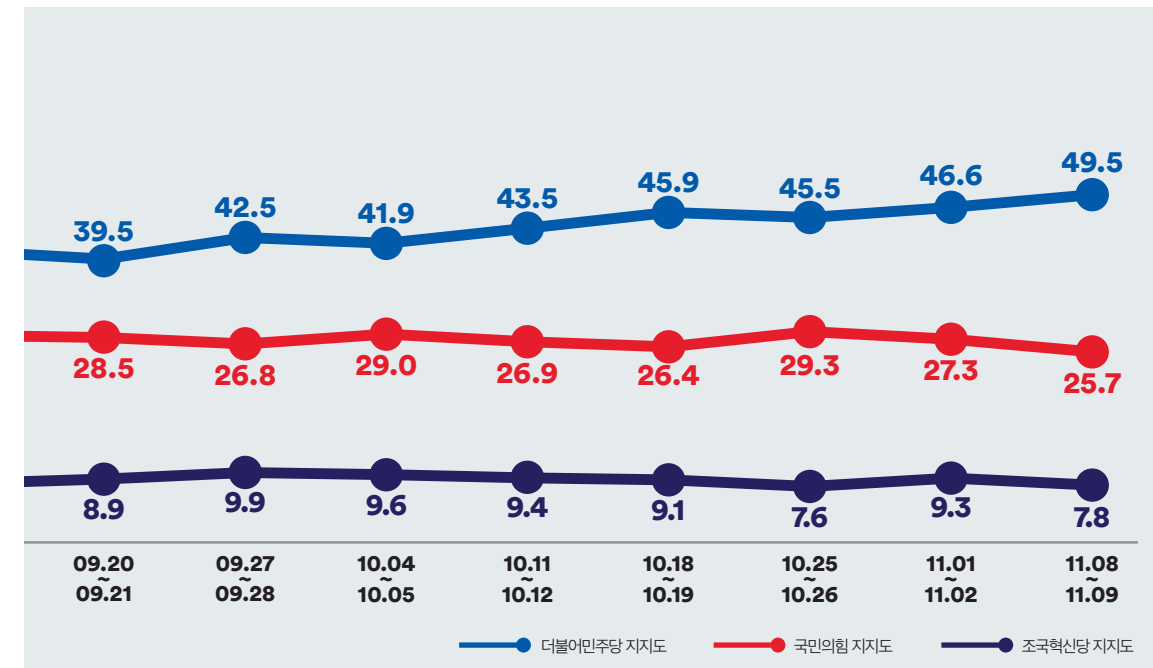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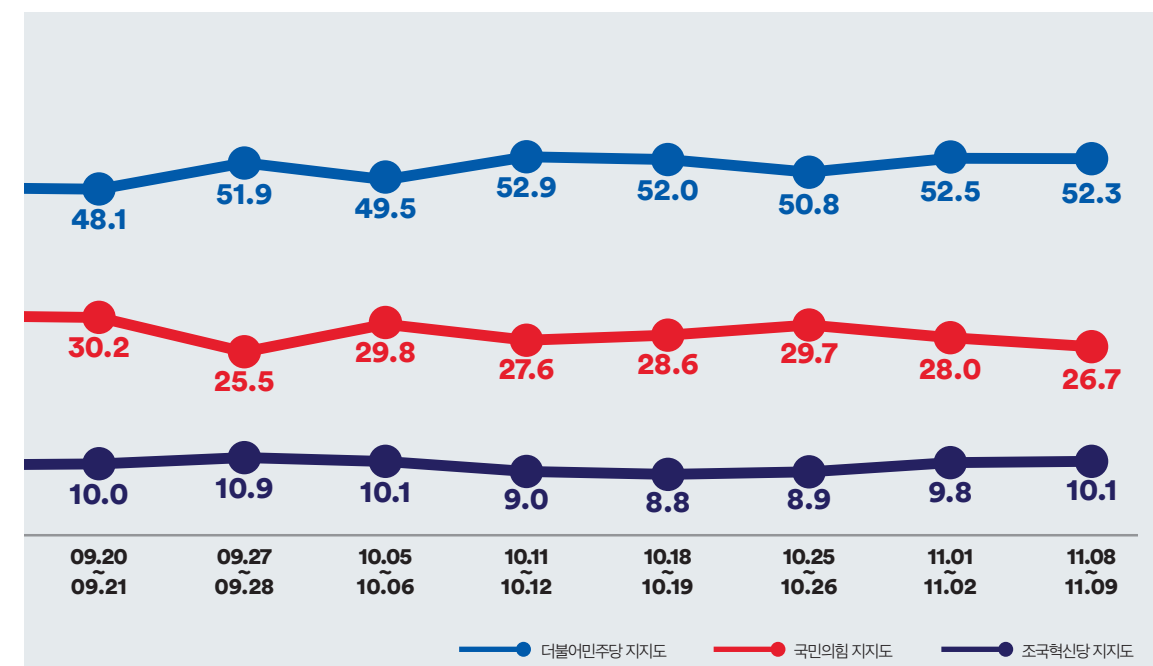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3.0%, '국민의힘' 18.0%, '조국혁신당' 10.3%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9.7%, '국민의힘' 27.0%, '조국혁신당' 11.6%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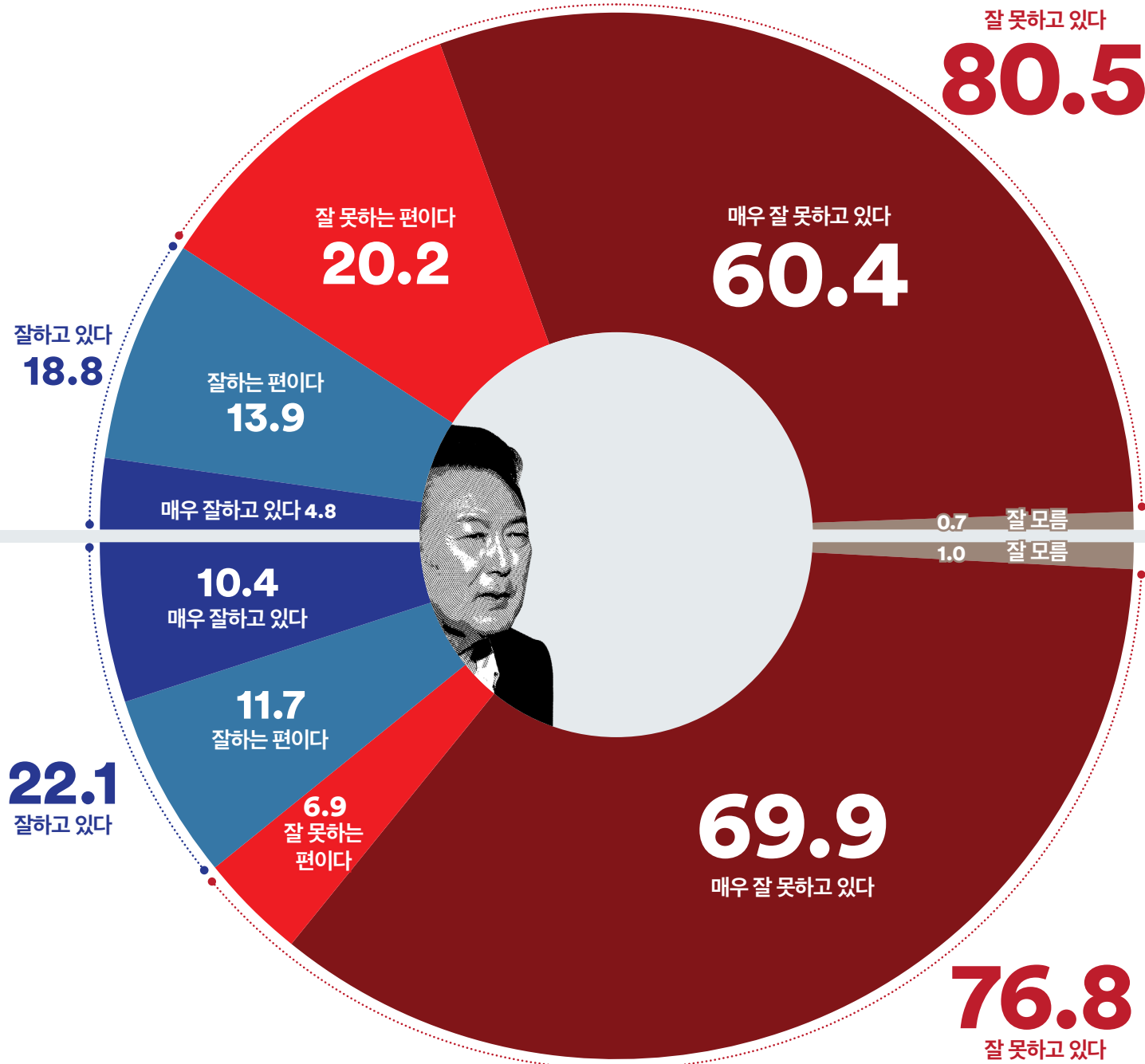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45.3%p(89차: 37.5%p), ARS 34.3%p(104차: 34.5%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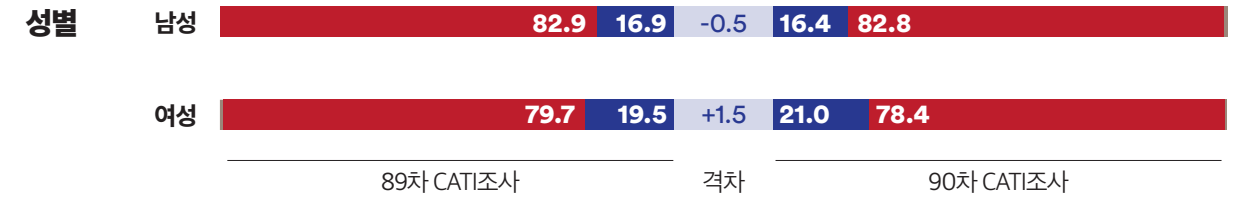


89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6%p 상승, '부정' 평가 0.8%p 하락(격차 6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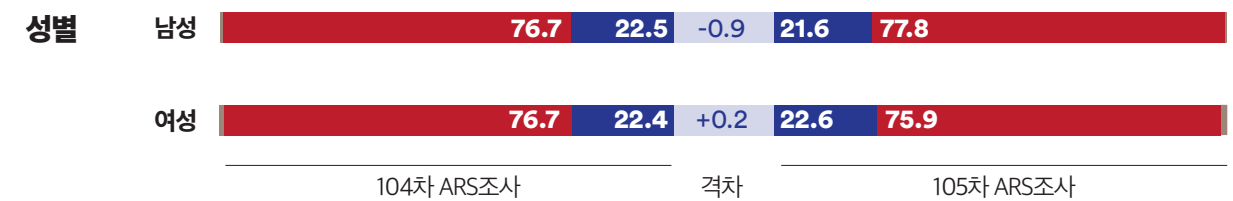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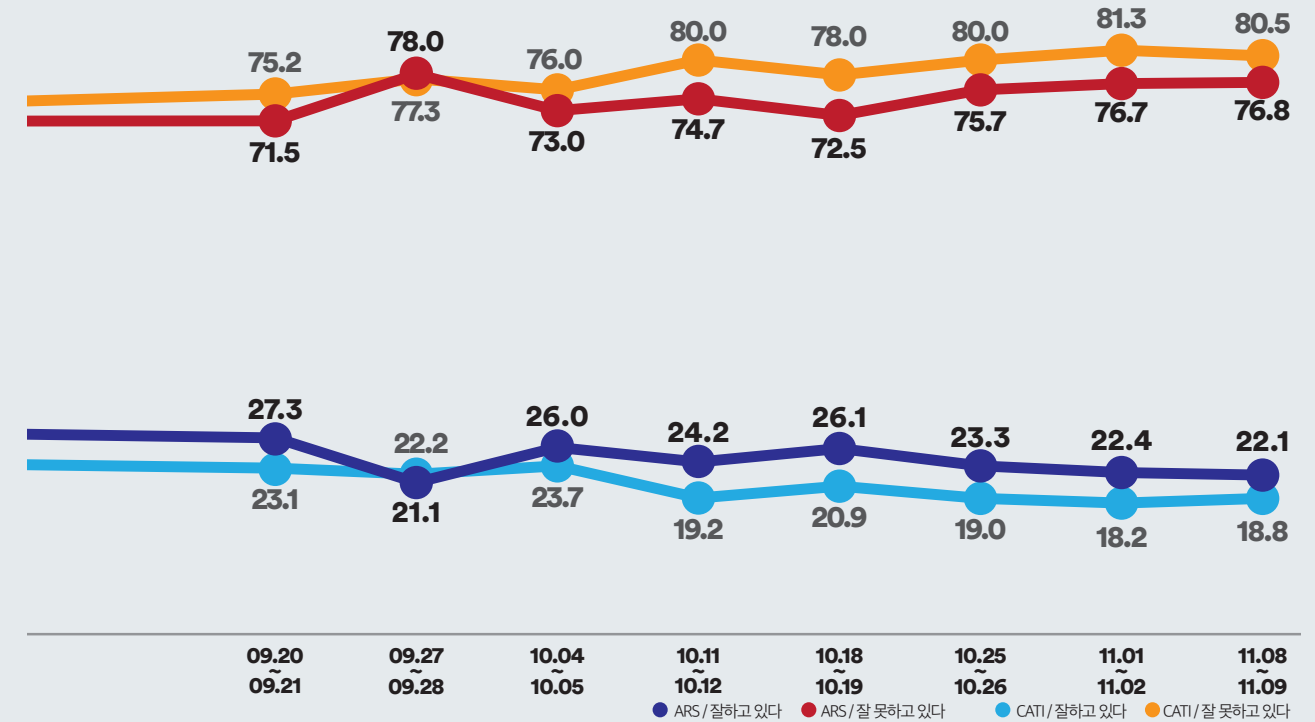
104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3%p 하락, '부정' 평가 0.1%p 상승(격차 54.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2.6%p(지난 조사: 73.1%p), ARS 60.4%p(지난 조사: 55.6%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104차 ARS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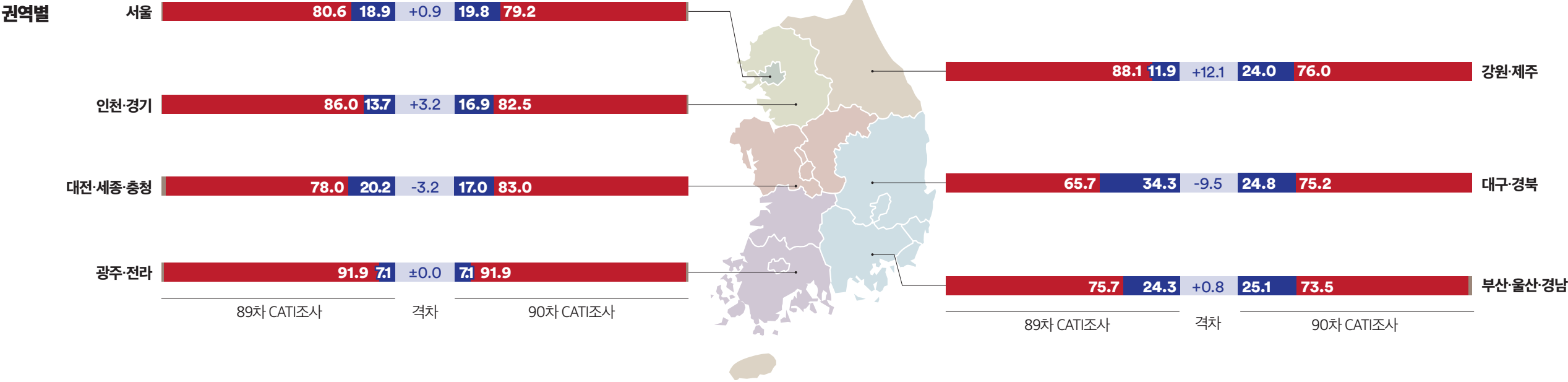
격차

105차 ARS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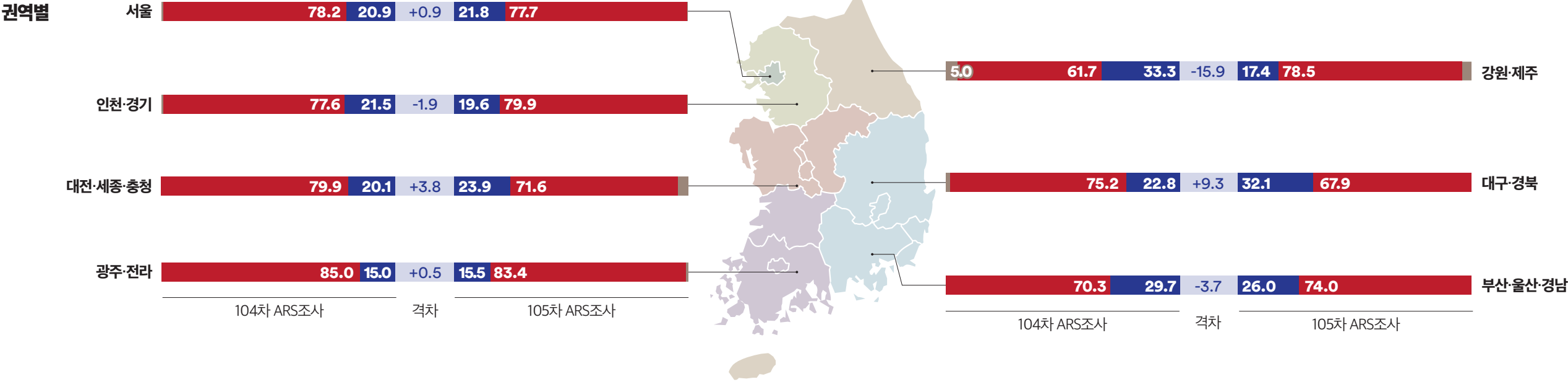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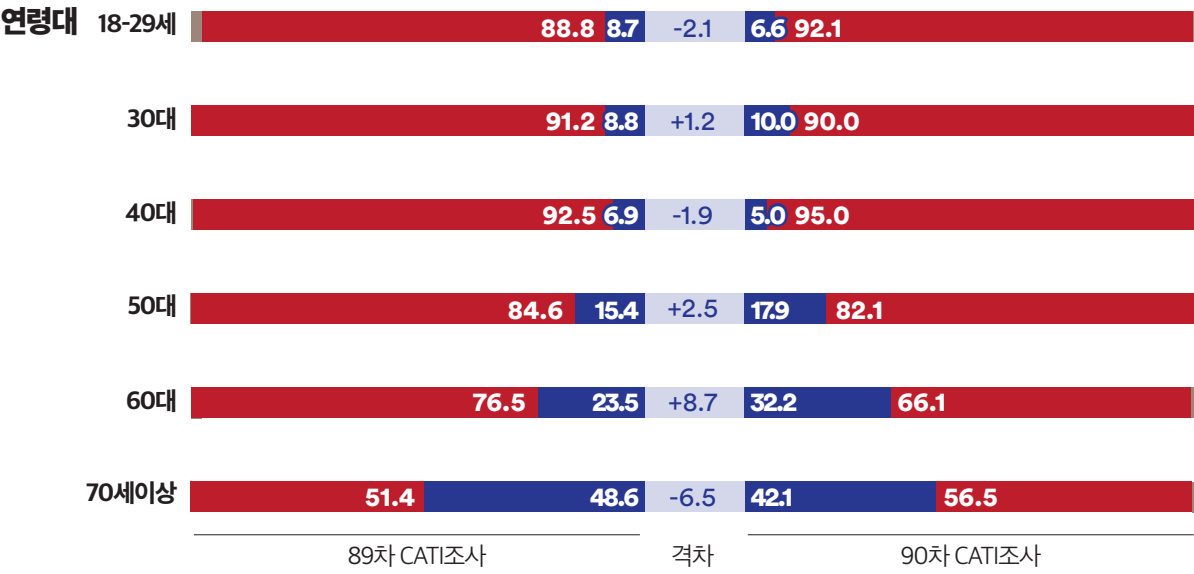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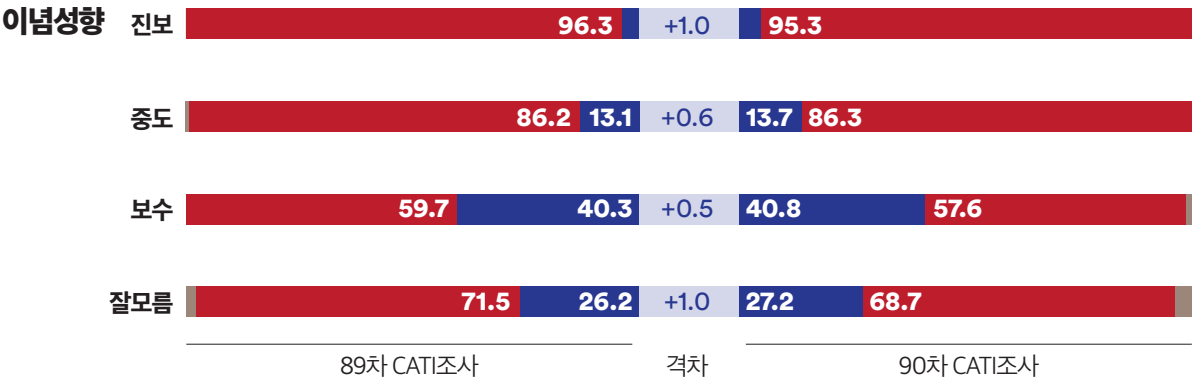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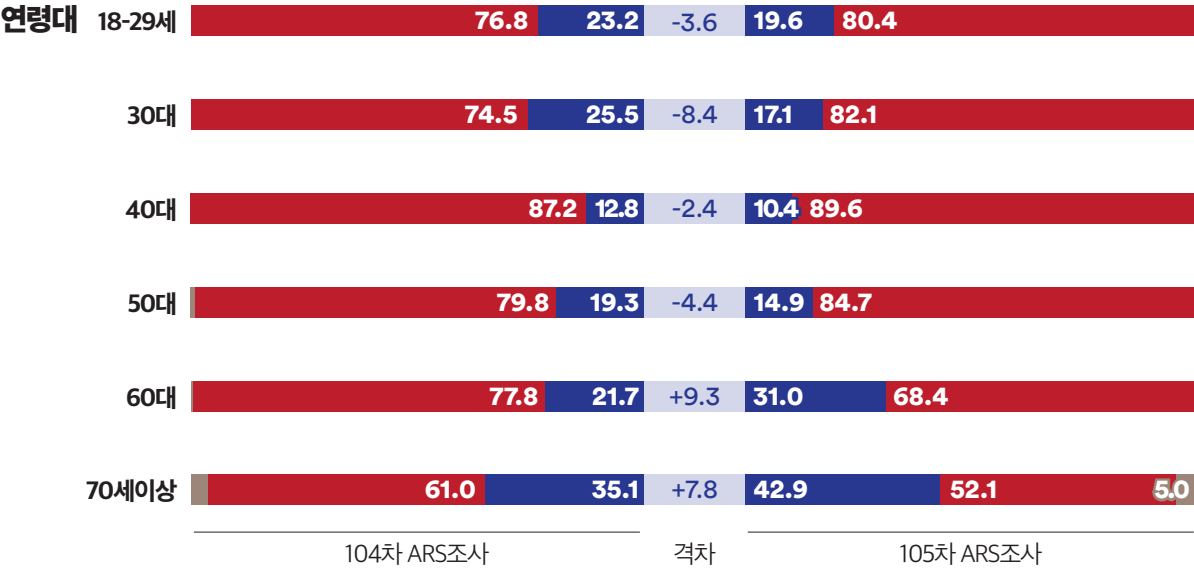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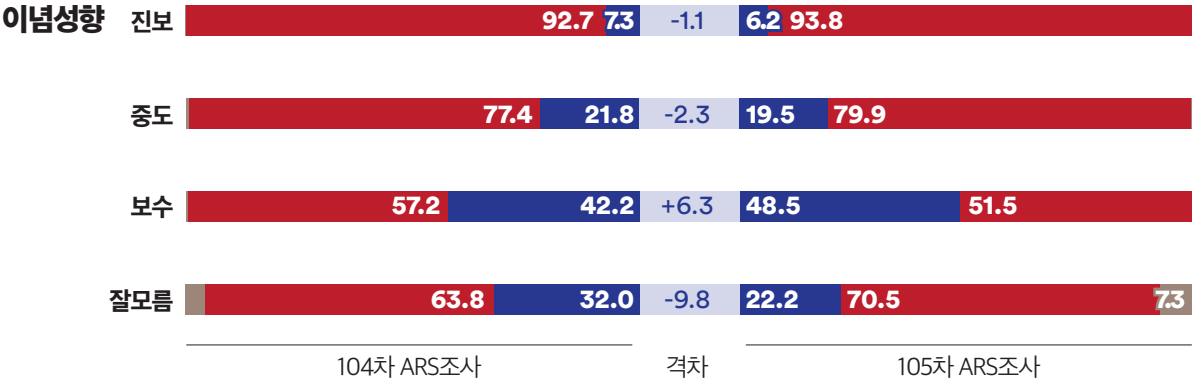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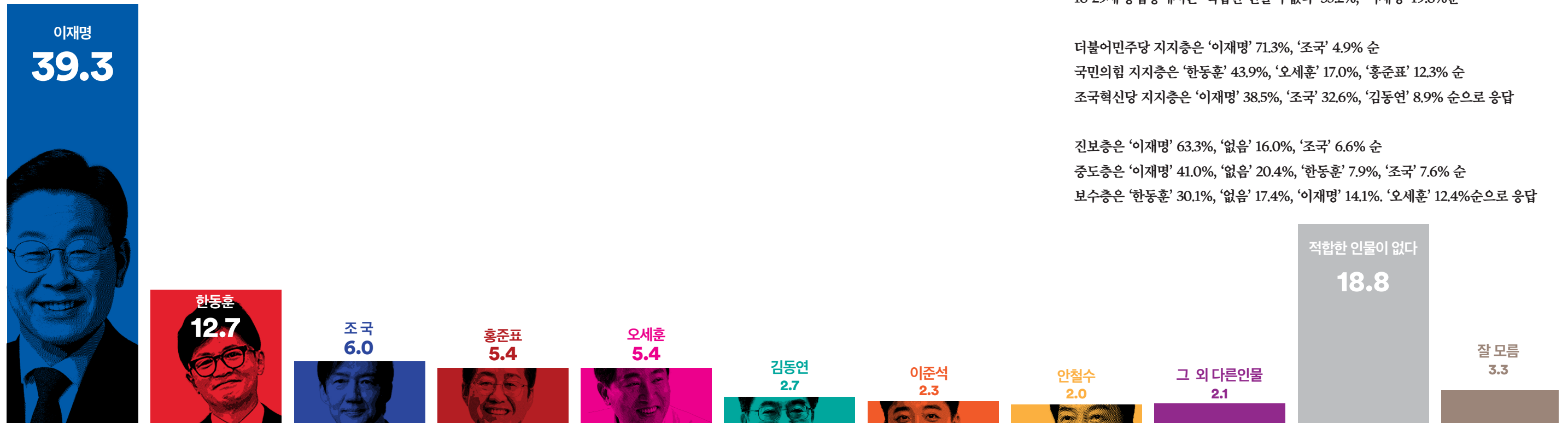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6.6%p)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35.2%, ‘이재명’ 19.8%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1.3%, ‘조국’ 4.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3.9%, ‘오세훈’ 17.0%, ‘홍준표’ 12.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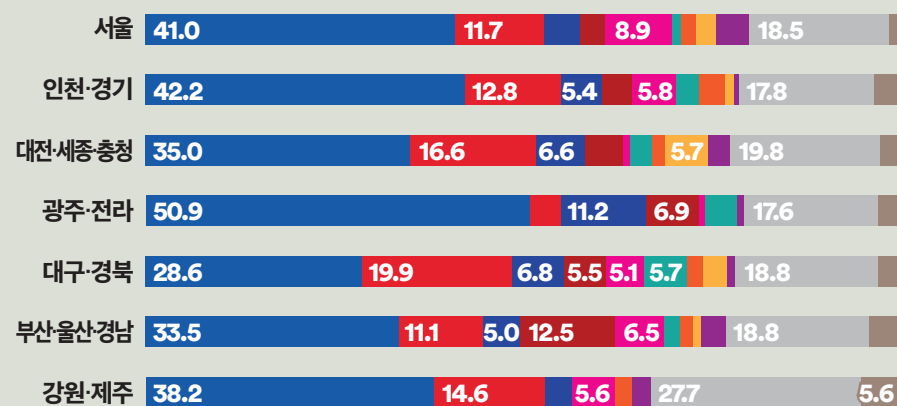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38.5%, ‘조국’ 32.6%, ‘김동연’ 8.9%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3.3%, ‘없음’ 16.0%, ‘조국’ 6.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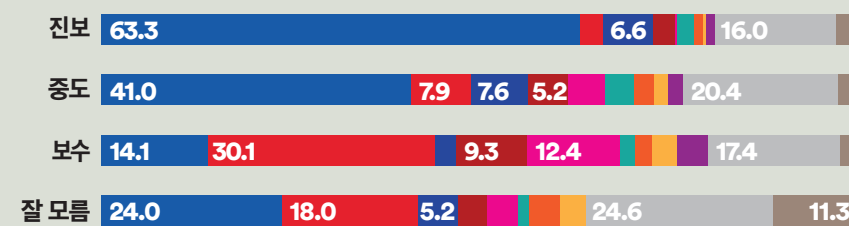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41.0%, ‘없음’ 20.4%, ‘한동훈’ 7.9%, ‘조국’ 7.6% 순

보수층은 ‘한동훈’ 30.1%, ‘없음’ 17.4%, ‘이재명’ 14.1%, ‘오세훈’ 12.4%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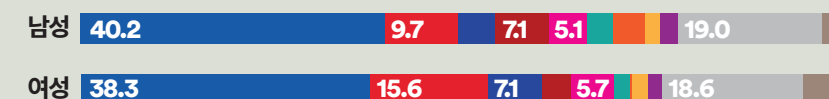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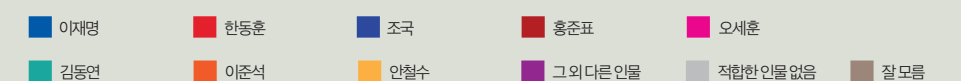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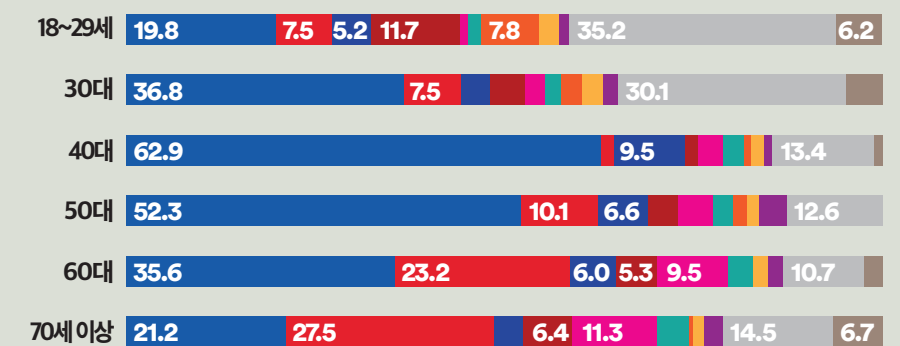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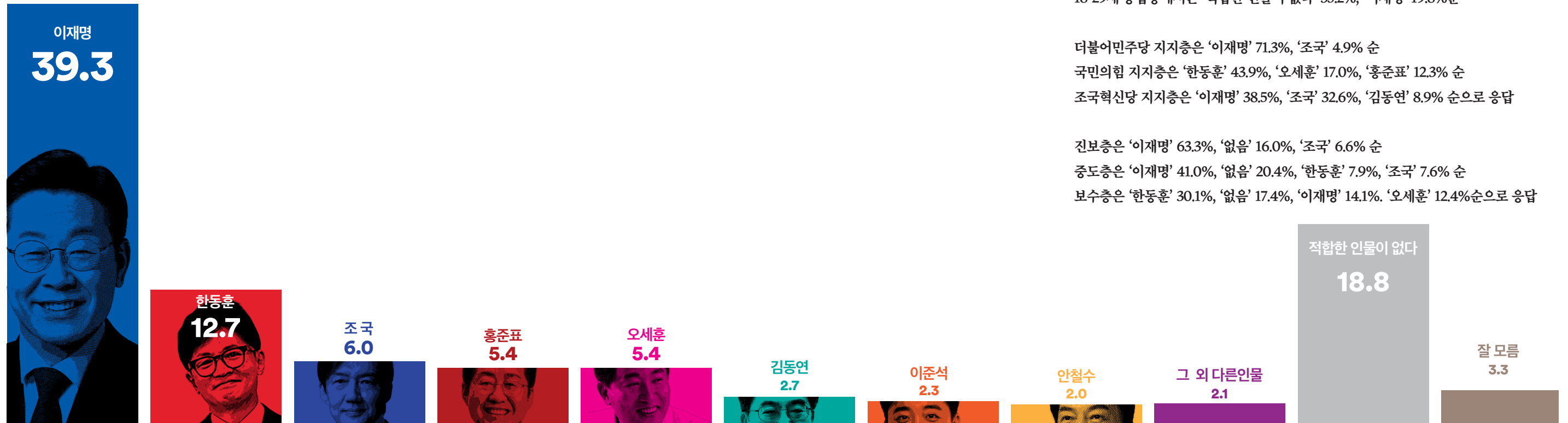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6.6%p)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35.2%, ‘이재명’ 19.8%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1.3%, ‘조국’ 4.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3.9%, ‘오세훈’ 17.0%, ‘홍준표’ 12.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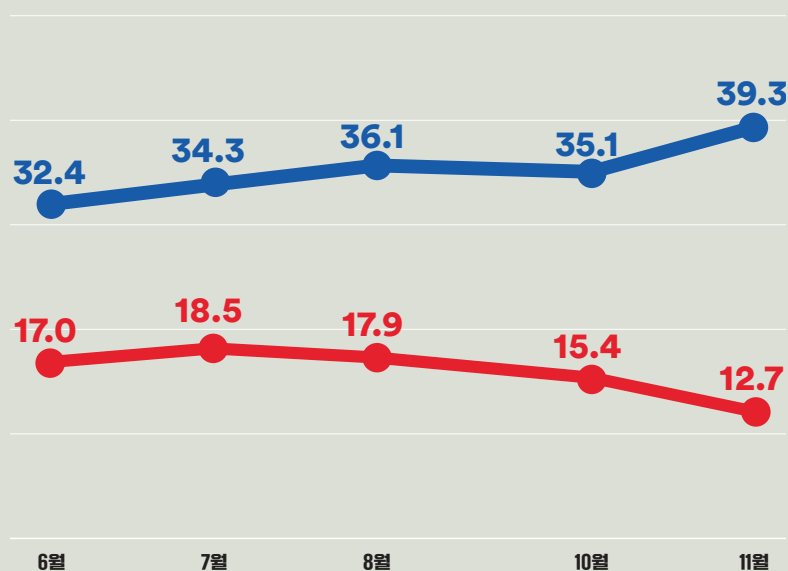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38.5%, ‘조국’ 32.6%, ‘김동연’ 8.9%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3.3%, ‘없음’ 16.0%, ‘조국’ 6.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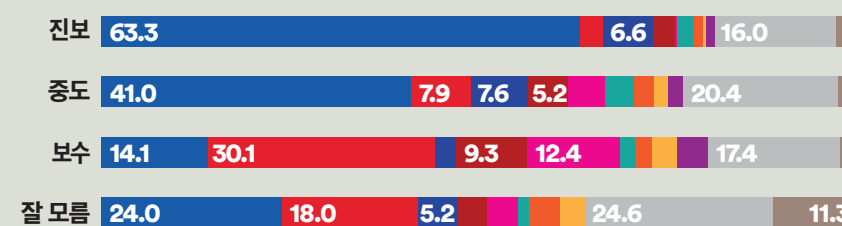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41.0%, ‘없음’ 20.4%, ‘한동훈’ 7.9%, ‘조국’ 7.6% 순

보수층은 ‘한동훈’ 30.1%, ‘없음’ 17.4%, ‘이재명’ 14.1%, ‘오세훈’ 12.4%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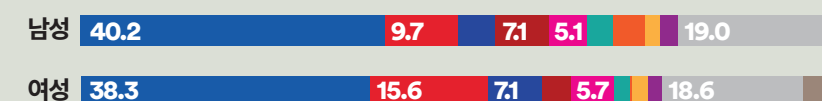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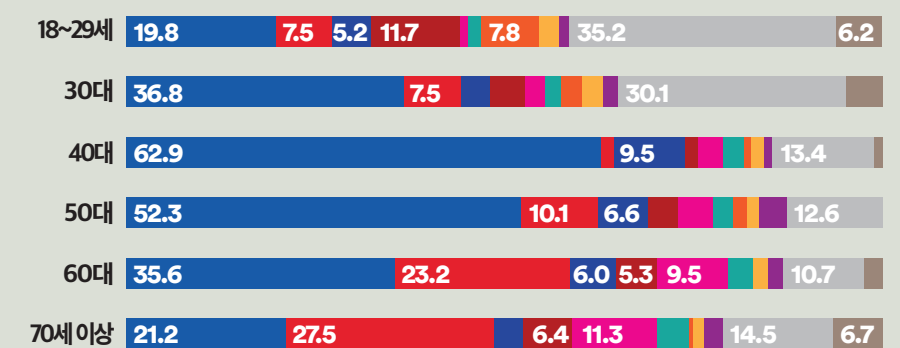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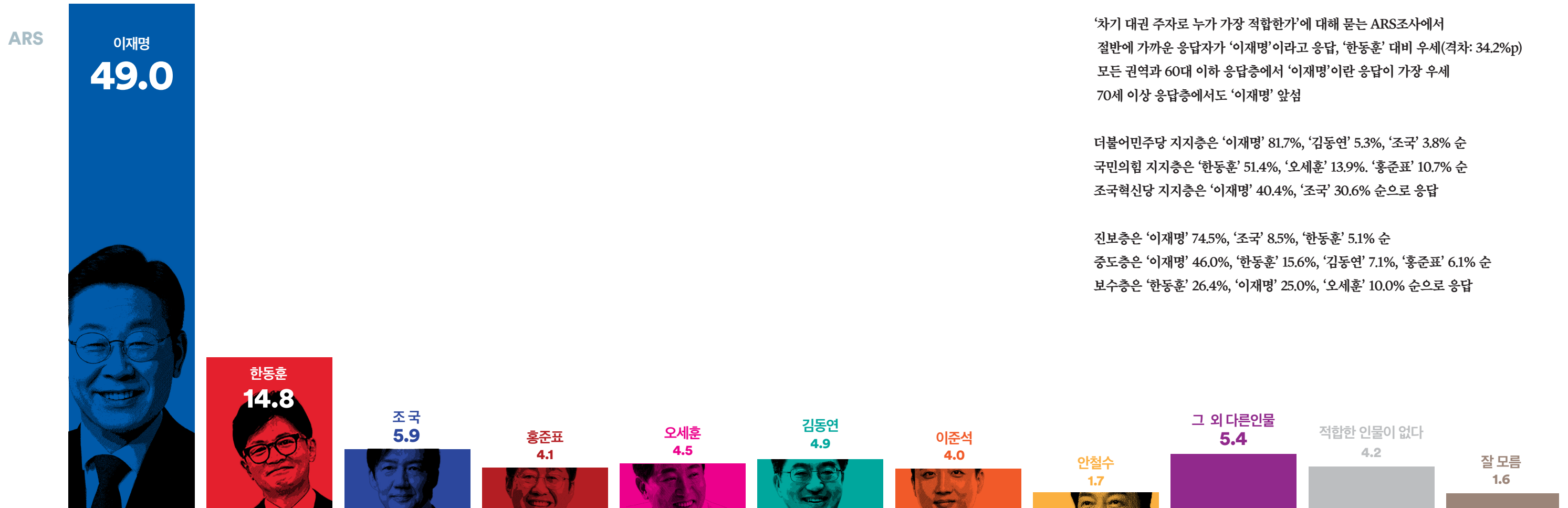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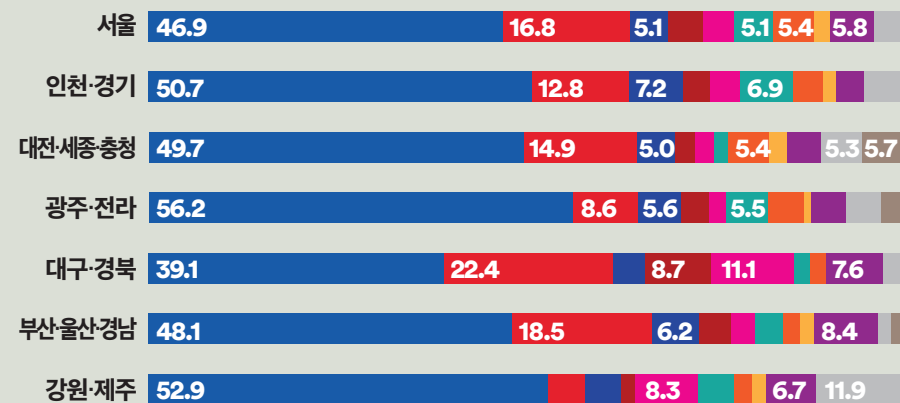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4.2%p)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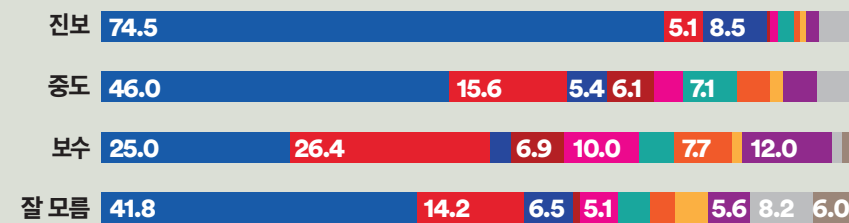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1.7%, ‘김동연’ 5.3%, ‘조국’ 3.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1.4%, ‘오세훈’ 13.9%, ‘홍준표’ 10.7%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0.4%, ‘조국’ 30.6%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4.5%, ‘조국’ 8.5%, ‘한동훈’ 5.1% 순 중도층은 ‘이재명’ 46.0%, ‘한동훈’ 15.6%, ‘김동연’ 7.1%, ‘홍준표’ 6.1% 순 보수층은 ‘한동훈’ 26.4%, ‘이재명’ 25.0%, ‘오세훈’ 10.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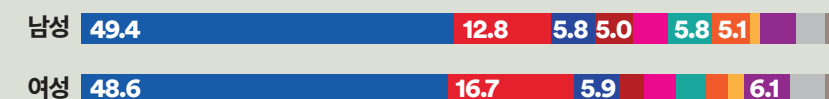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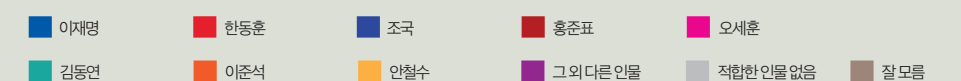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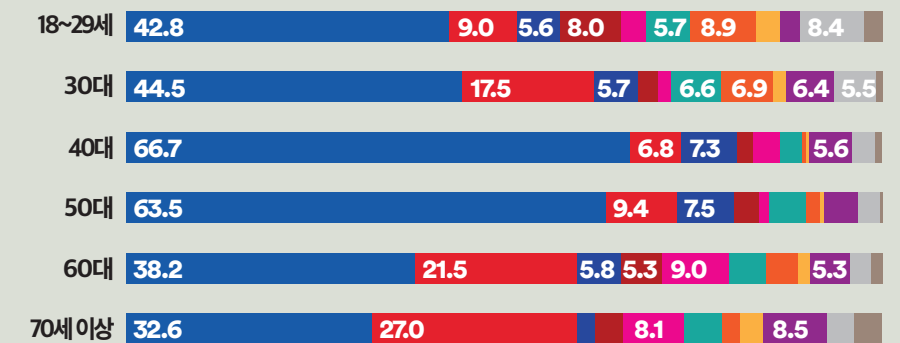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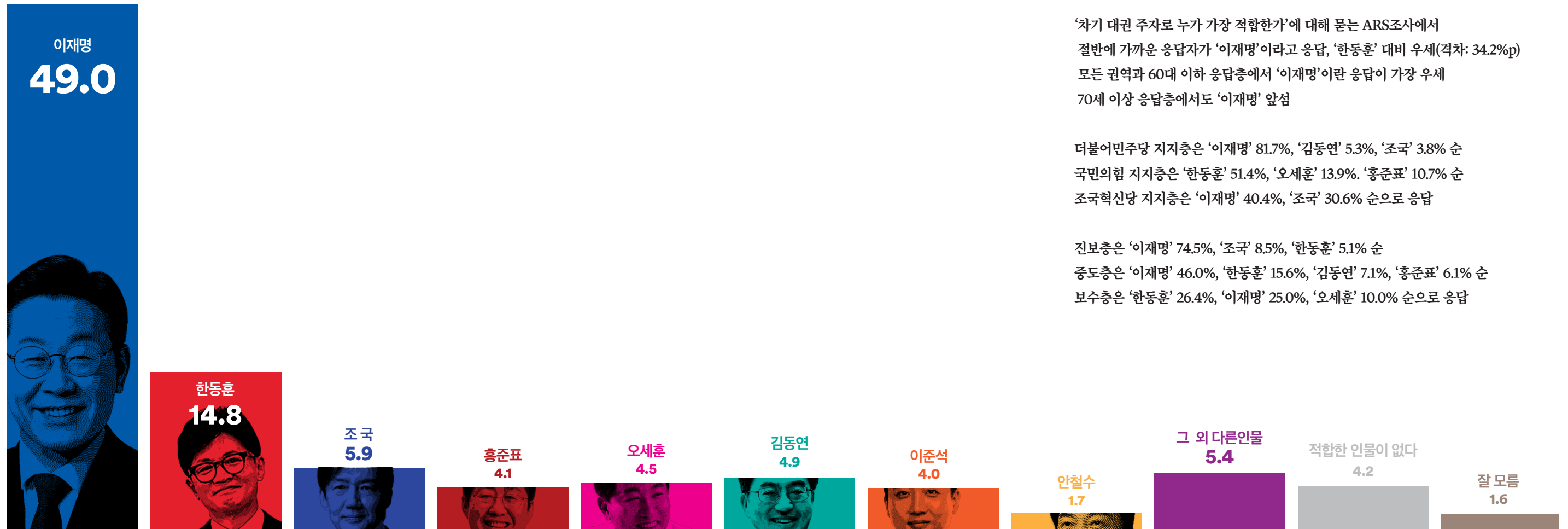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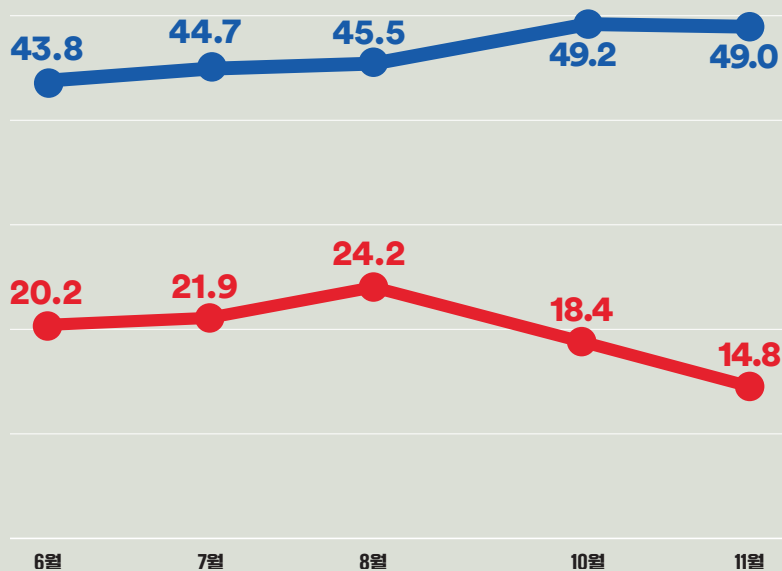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4.2%p)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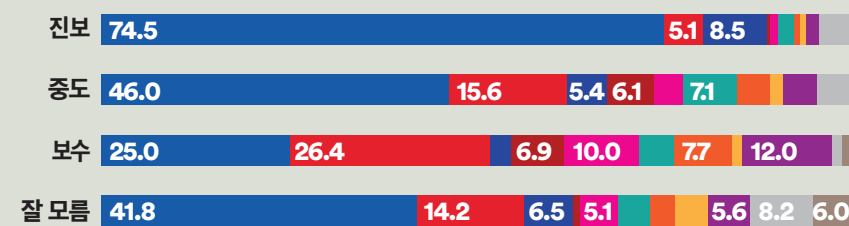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1.7%, ‘김동연’ 5.3%, ‘조국’ 3.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1.4%, ‘오세훈’ 13.9%, ‘홍준표’ 10.7%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0.4%, ‘조국’ 30.6%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4.5%, ‘조국’ 8.5%, ‘한동훈’ 5.1% 순 중도층은 ‘이재명’ 46.0%, ‘한동훈’ 15.6%, ‘김동연’ 7.1%, ‘홍준표’ 6.1% 순 보수층은 ‘한동훈’ 26.4%, ‘이재명’ 25.0%, ‘오세훈’ 10.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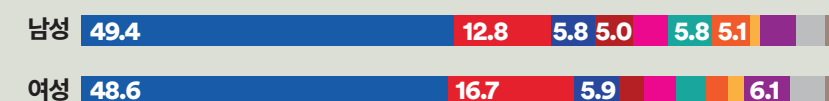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이념성향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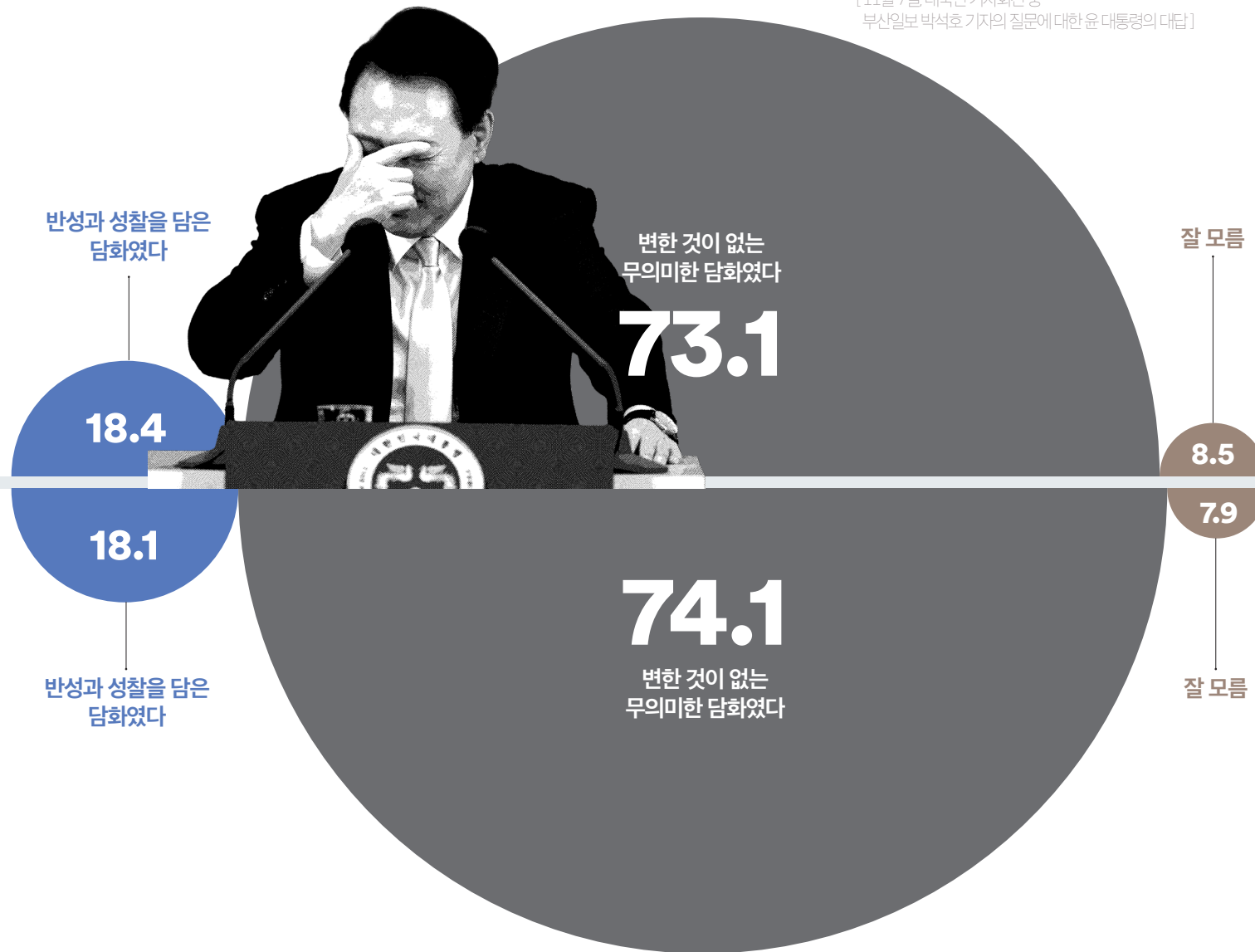
Q.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딱 짚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짚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짚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중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

CATI

ARS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변한 것이 없는 무의미한 담화'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54.7%p, ARS 5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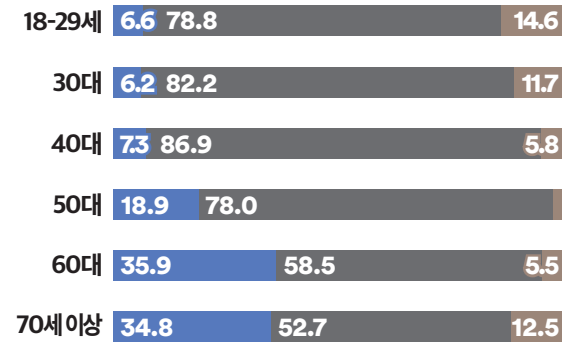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연령과 모든 권역,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무의미한 담화'라는 비율 앞서거나 우세

보수층에서도 '무의미한 담화'라는 의견이 앞섬(응답 간 격차: CATI 6.8%p, ARS 8.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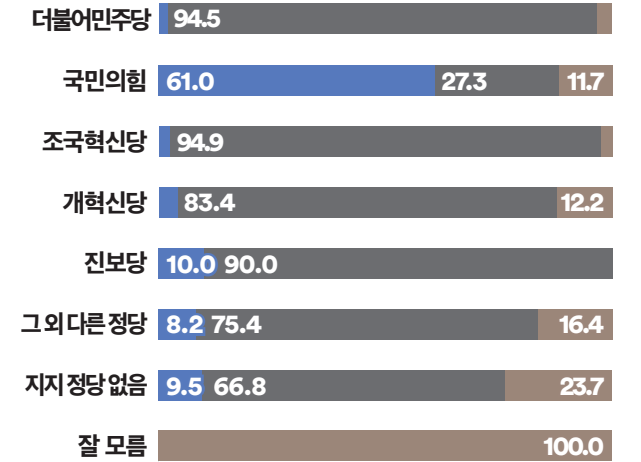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조사 모두 '반성과 성찰을 담은 담화'란 응답 우세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한동훈'이라 응답한 층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담은 담화'라는 응답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28.1%p, ARS 2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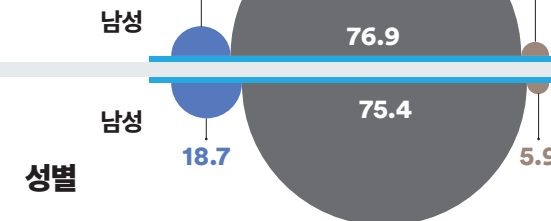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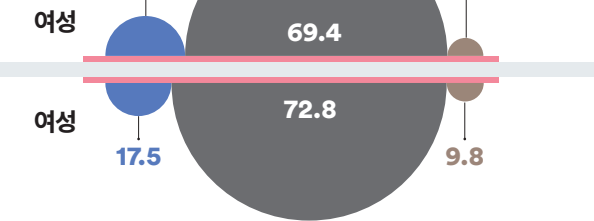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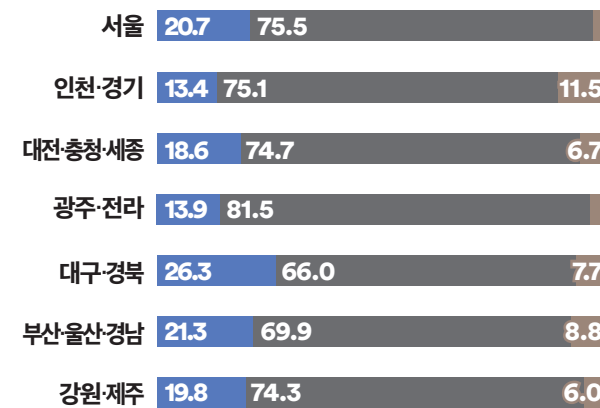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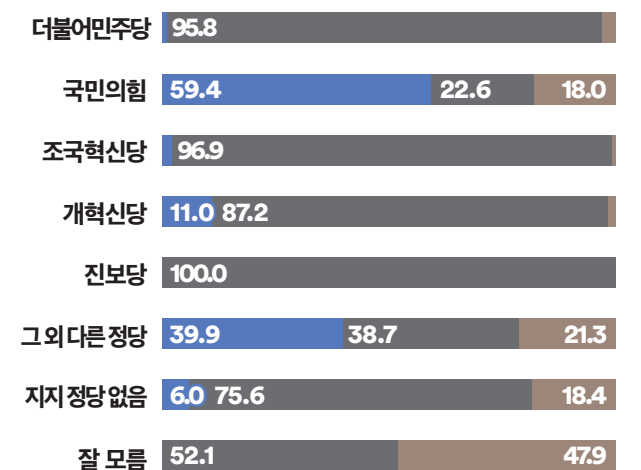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반성과 성찰을 담은 담화였다 변한 것이 없는 무의미한 담화였다 잘 모름

3차특검표결

Q.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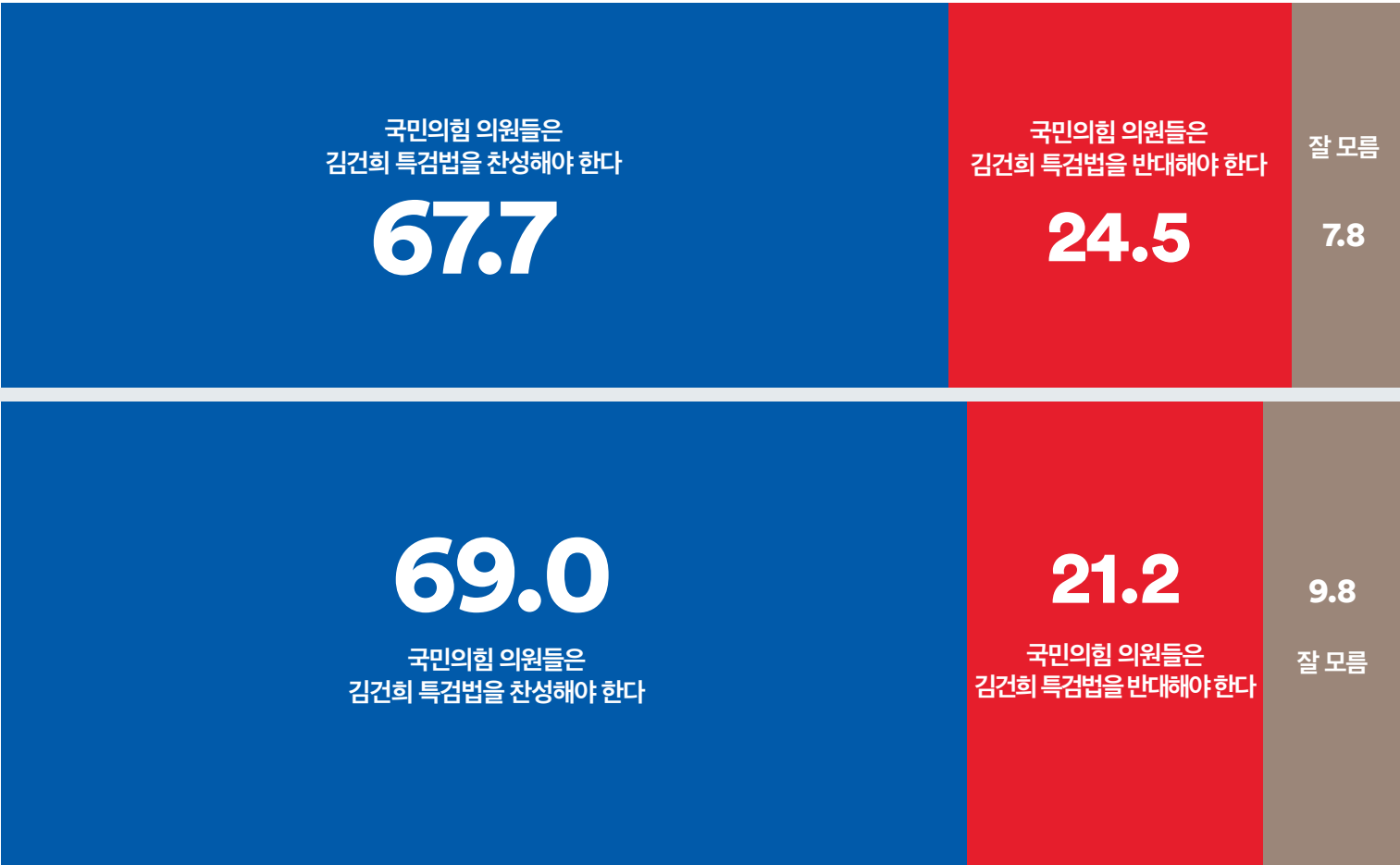
CATI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발언]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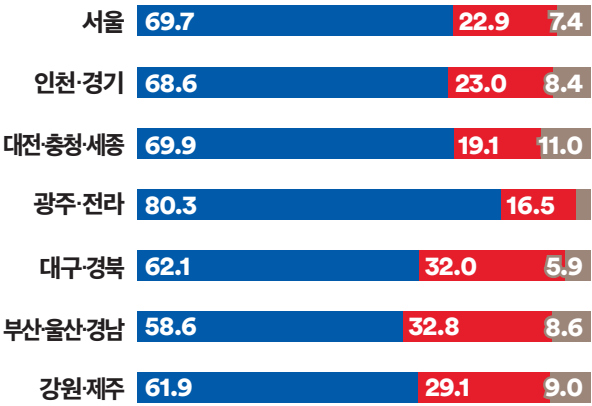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식 김건희씨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검찰의 해체와 근본적 재건축,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만이 해답”
[아기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서면브리핑]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건희 특검밖에는 갈 길이 없다”
[장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서면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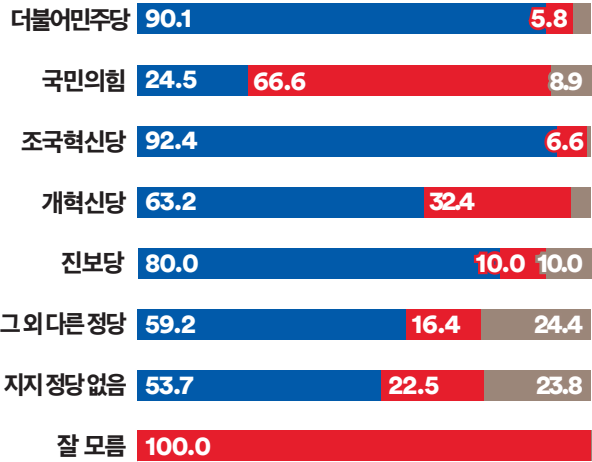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7명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43.2%p, ARS 47.8%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CATI조사의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42.1%p, ARS 41.1%p)
CATI조사의 보수층과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한동훈’을 선택한 층에서도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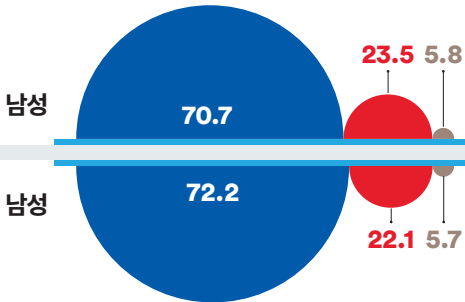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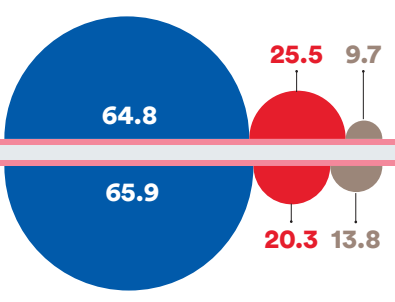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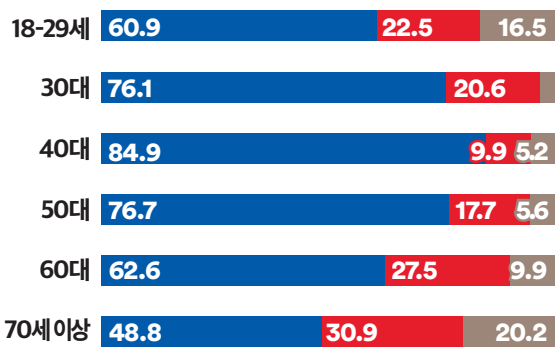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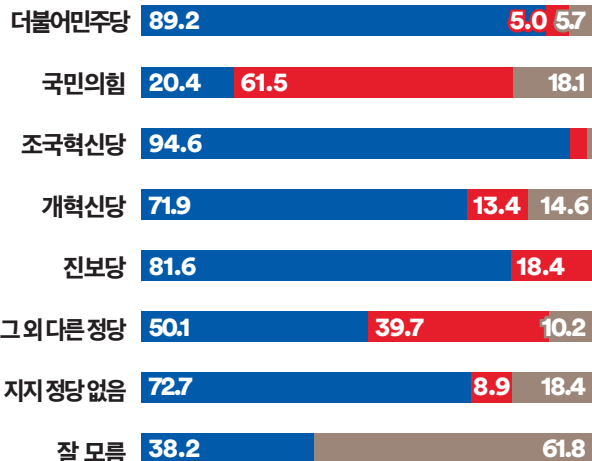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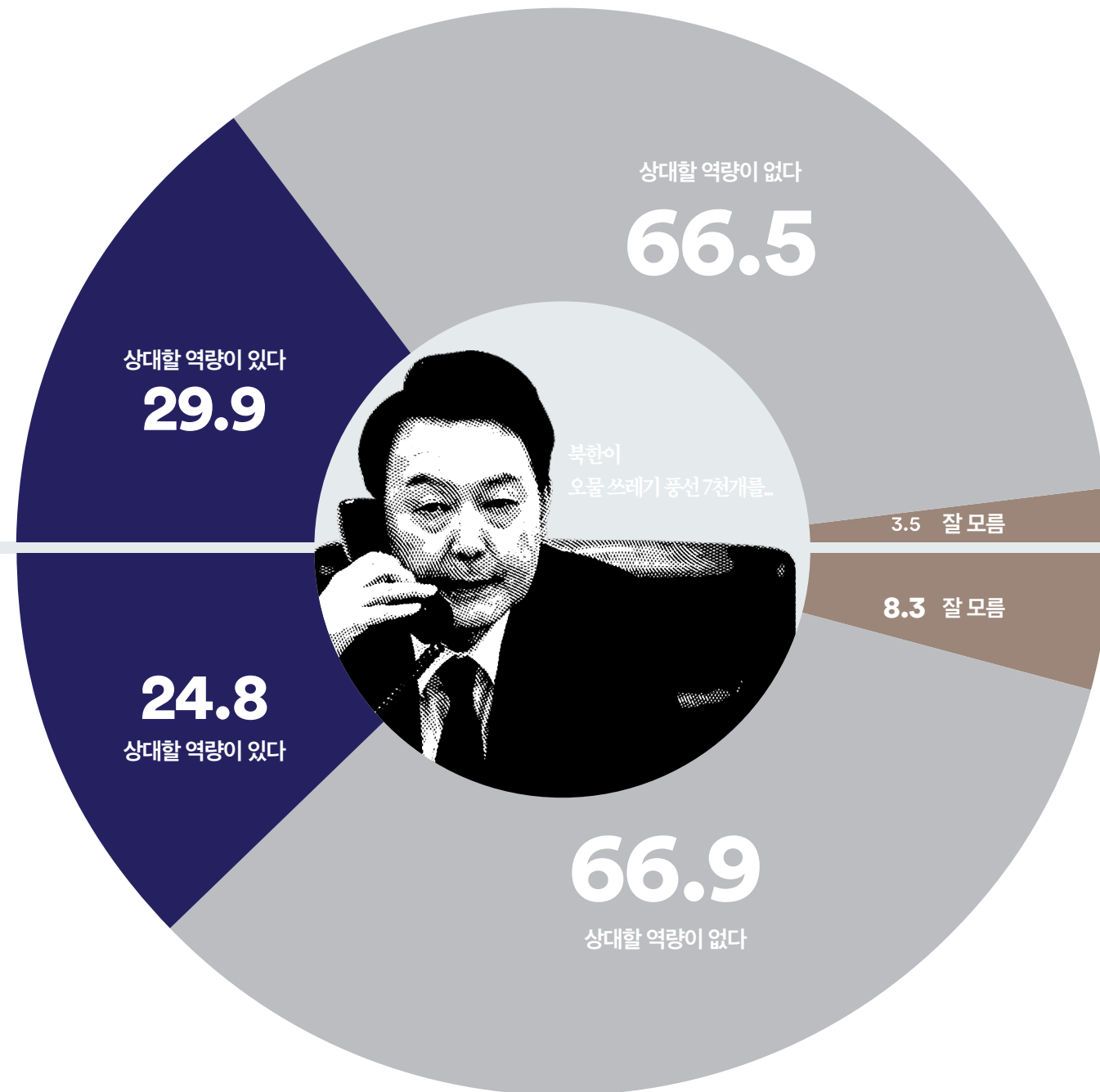


■ 찬성해야 한다 ■ 반대해야 한다 ■ 잘 모름

Q.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를 상대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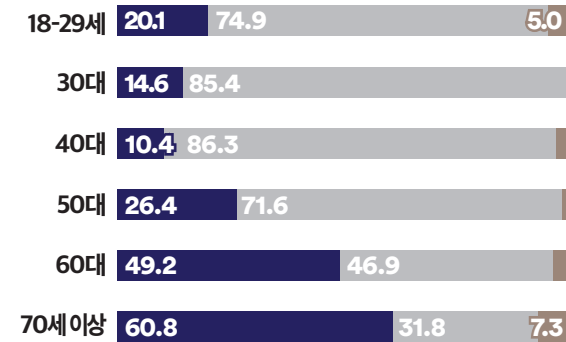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를 상대할 외교적 역량이 없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6.6%p, ARS 42.1%p)

CATI조사의 P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상대할 역량이 없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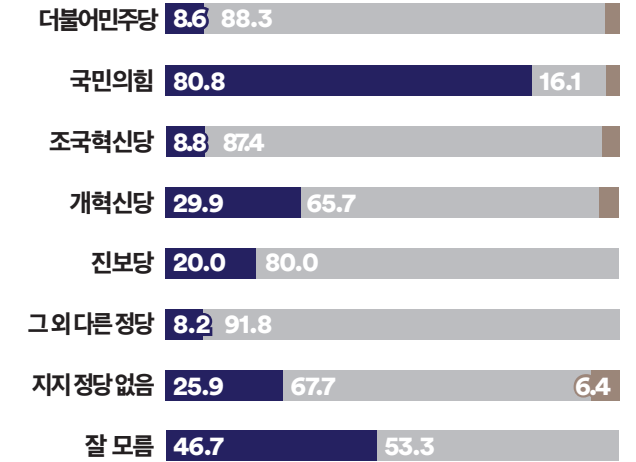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CATI조사의 50대 이하,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상대할 역량이 없다'는 응답 우세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대할 역량이 있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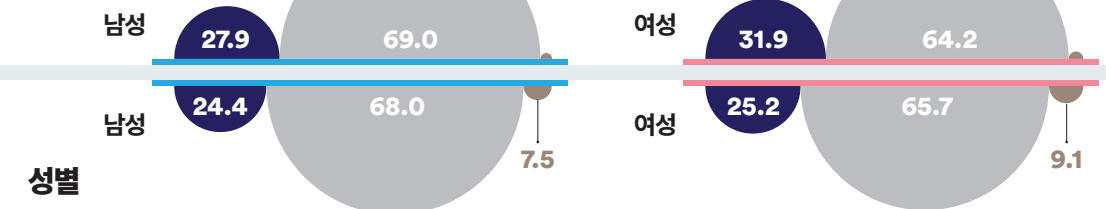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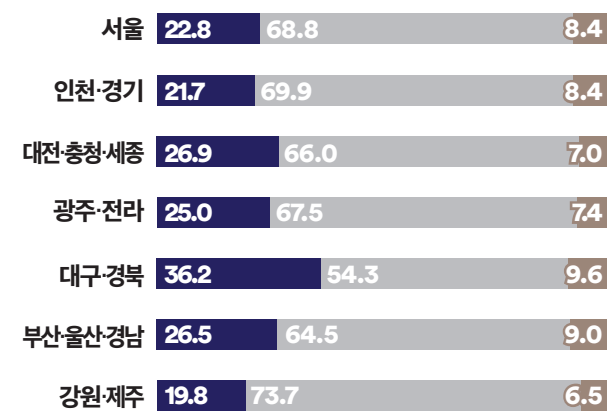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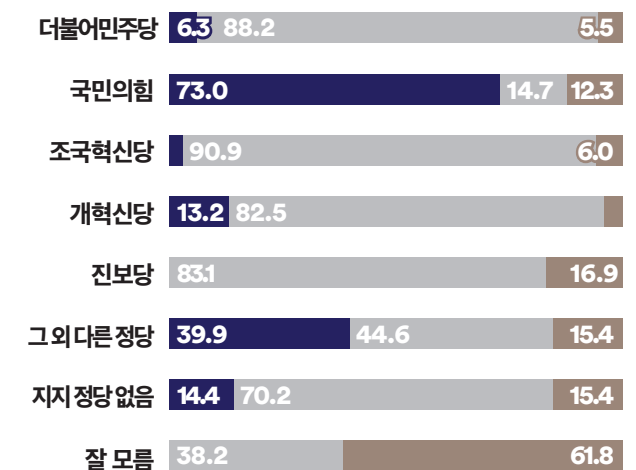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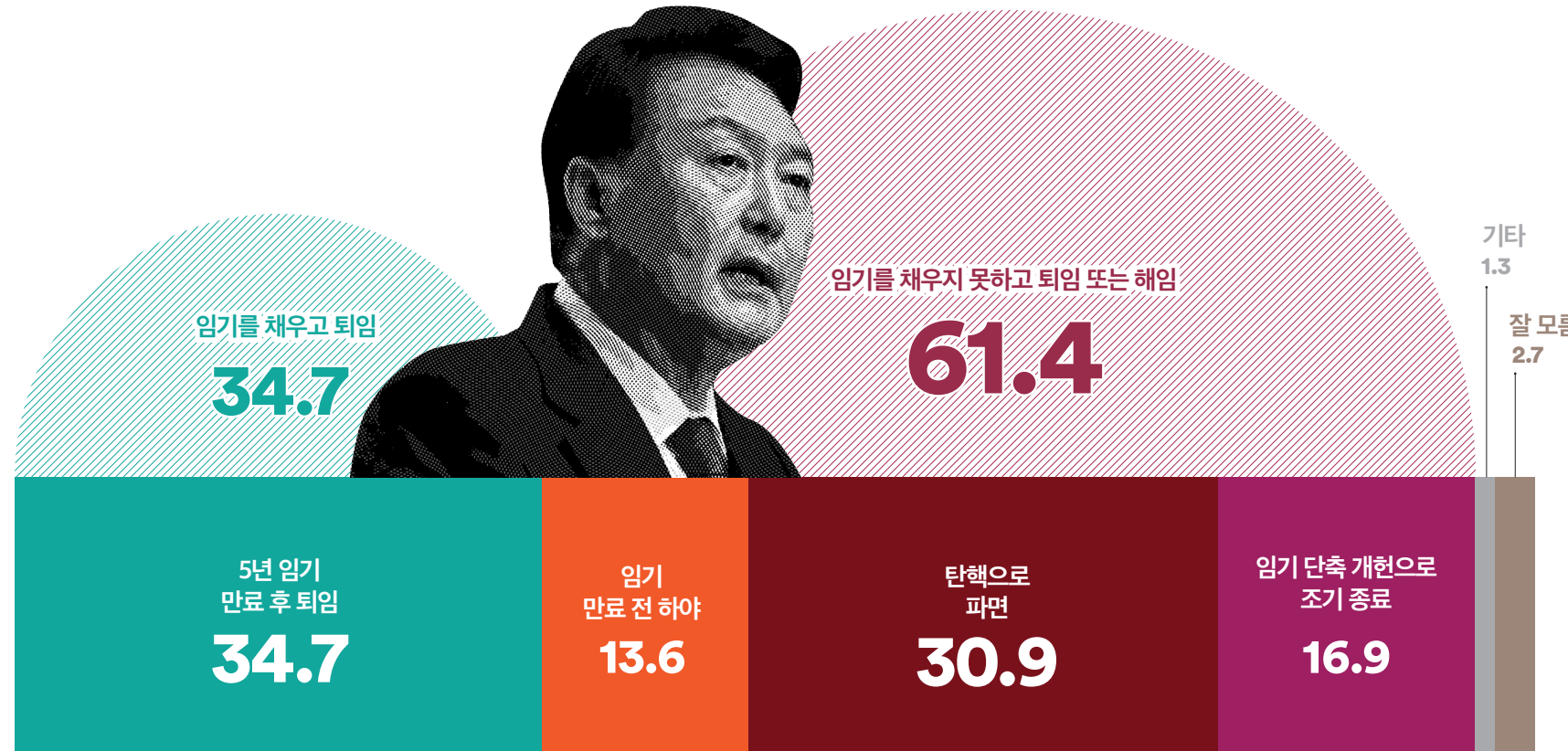


■ 상대할 역량이 있다 ■ 상대할 역량이 없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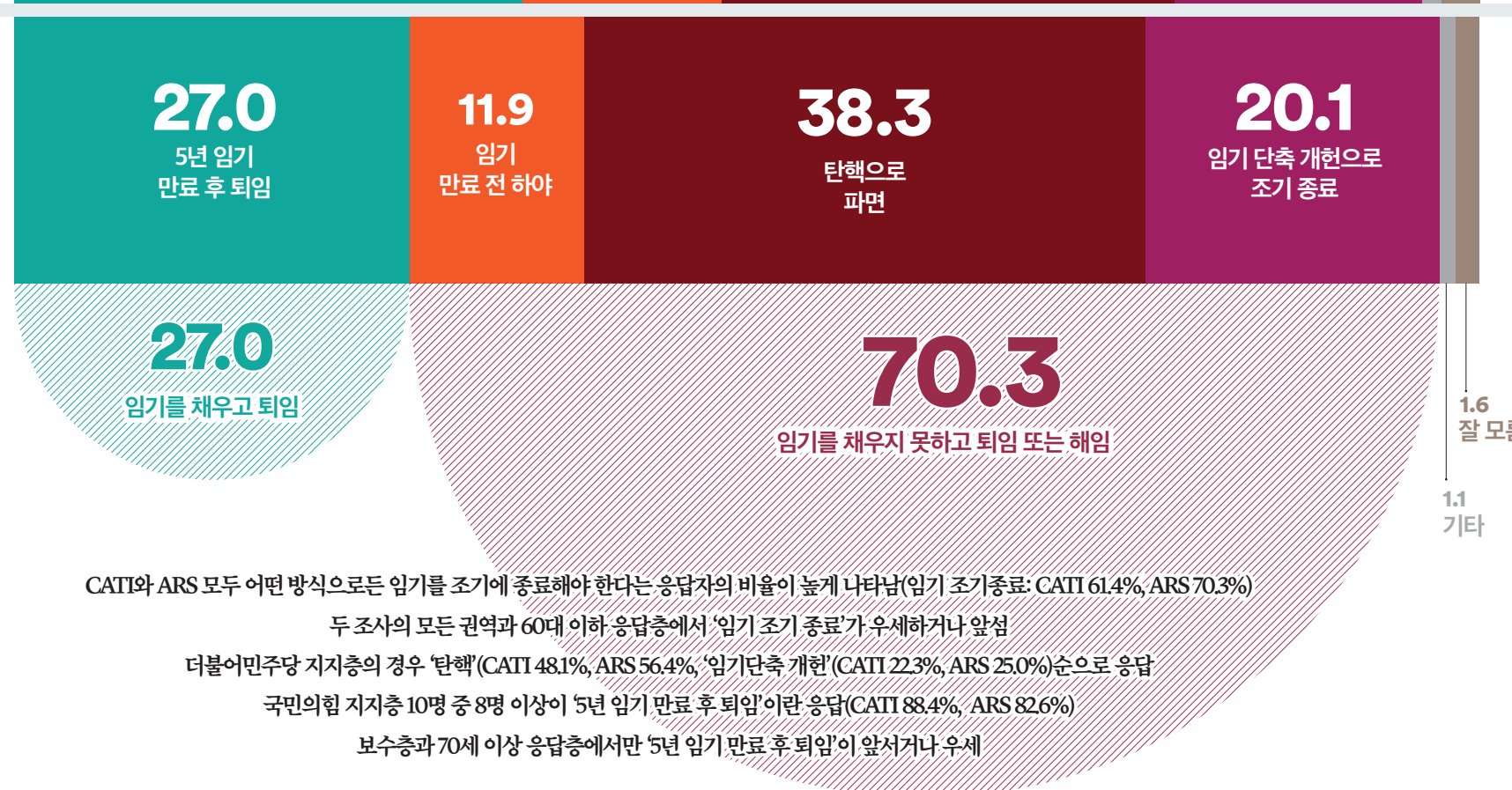


Q.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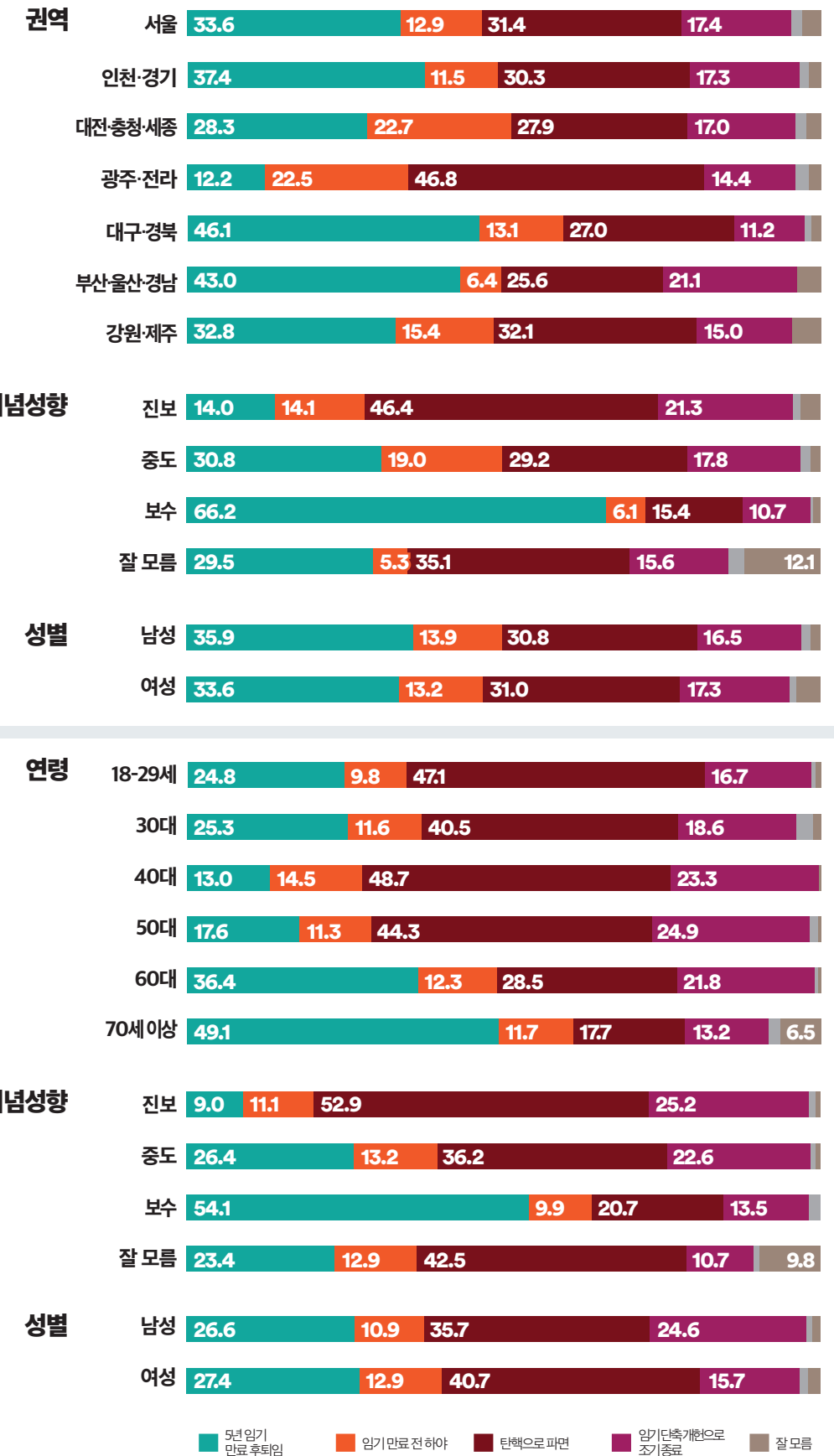
CATI와 ARS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임기 조기종료: CATI 61.4%, ARS 70.3%)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임기 조기 종료'가 우세하거나 앞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탄핵'(CATI 48.1%, ARS 56.4%), '임기단축 개헌'(CATI 22.3%, ARS 25.0%)순으로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8명 이상이 '5년 임기 만료 후 퇴임'이란 응답(CATI 88.4%, ARS 82.6%)

보수층과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5년 임기 만료 후 퇴임'이 앞서거나 우세



5년 임기 만료 후 퇴임 | 임기 만료 전 하야 | 탄핵으로 파면 |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종료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1_02
